

# 경북도, 금오산 중심 78km 대규모 둘레길 조성 사업 검토

걷기 여행객 급증... 사업여건 충분  
구미·김천·칠곡 등 관광자원 연계  
이르면 2029년 사업완료 방침



금오산 전경.

경북도가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걸쳐있는 금오산을 중심으로 80km 이르는 대규모 둘레길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경북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금오산은 국내 도립공원 제1호이자 영남팔경에 속하는 높은 인지도에도 관광 이미지는 미흡한 편이다. 등산 코스는 가파르고 난이도가 높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 반면, 주변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고 전국적으로 걷기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금오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금오산은 총면적 37㎢ 중 구미시에 55.9%, 김천시에 22.8%, 칠곡군에 21.3% 분포하고 있다.

용역 업체에 따르면 이곳에 둘레길을

만들면 대경선, 경부선, 경부고속선,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4호선 등이 가깝고 지자체별로 주요역에서 승용차로는 20분 이내 거리여서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봤다.

또 금오산 구역으로 구미에는 약사암, 해운사 등 유명 사찰 및 경관명소가 많고 김천에는 대성지, 오봉지 등 주민들이 즐겨찾는 수변여가공간이 발달돼 있고 하천변을 따라 캠핑장, 청소년 수

련원 등 테마시설이 있으며 칠곡군에는 금오동천(계곡피서지)을 중심으로 식음 및 숙박시설 활성화돼 있어 이를 연계하면 걷기관광 수요가 증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자연경관 및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하고 산촌마을을 경유하면서 임도, 공원·마을길, 하천길, 보도 등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대중교통과 연

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둘레길의 반경은 2km, 총길이는 77.9km, 1코스당 길이는 15km 내외(최대 20km 미만)로 제안했다.

걷기길의 스토리텔링 구성 요소로 구미성리역사관(유교, 인제), 채미정(길재, 충절, 학덕), 금오산저수지(걷기, 힐링) 등을 연계해 '길재에게 길을 묻다', '아은 길재 인문학 도슨트', '명상트레킹' 등을 주요 예시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정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빠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둘레길 50% 이상이 숲길이고, 완만한 코스를 선정해 보행 약자들도 이용이 쉽도록 하며, 주민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고 주민·전문가·탐방객 등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전복 이벤트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을 기념해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벤트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을 완료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선착순 1000명에게 기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전복 800g을 추가 증정한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 구미시

#### '구미형 급행버스' 첫 도입

경북 구미시가 올해 하반기 30억원을 들여 구미형 급행버스를 첫 도입한다.

시는 급행버스 도입과 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2개 노선에 버스 20대를 투입해 강동~강서, 산업단지~주거지를 연결, 출·퇴근 이동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주차장(125면)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봉곡동 주차타워(117면)는 6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 경북도, 첨단산업 거점 구축 속도

구미·포항 중심 인프라 확보 나서

경북도가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구미 투자계획,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맞춰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지난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는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체계 구축, 로봇 데이터 팩토리, AI Driven Factory 구축, 신규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구미에 총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은 제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접목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영남권을 글로벌 피지컬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엔 정부에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고, 구윤철 부총리는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연계한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AI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내생산세액

공제 신설, 지방투자세제지원 확대,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번 발표를 제조 AX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계기로 보고,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구미를 로봇 생산과 핵심 부품 공급망 거점, 포항을 연구개발과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융합연구원 유치,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안전로봇실증센터 구축, 연구개발 지원, AI팩토리 보급사업,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두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미는 제조기업과 부품기업을 기반으로 생산과 공급망을 담당하고, 포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 기술 사업화, 기업 협력을 맡는 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확정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원 구성을 마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올해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정례회와 3차례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기는 정례회 53일, 임시회 30일 등 모두 83일이다.

첫 임시회는 지난 1일 0시 개원해 지난 3일 폐회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단, 상임위원 선출까지 초대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두번째 임시회는 13~22일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별로 통합특별시 실·국별 업무보고와 안전 처리가 예정돼 있다.

제3차 화기는 첫 정례회로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4~21일 열린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초대 통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4번째 화기인 10월 임시회는 7~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난 1일 전남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

23일 진행된다. 시정과 교육행정 질문답변과 함께 조례·동의안·건의안 등 주요 안건 처리와 상임위 활동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연중 마지막인 제5차 화기는 제2차 정례회다. 11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45일간 이어진다. 내년 본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반기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포항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유망 골목상권 육성 등 145억 투입

포항시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상권 특화,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 관광 연계를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5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테마상권과 유망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구룡포는 체험형 로컬테마상권으로, 쌍사상가는 청년 중심

문화상권으로 육성하고 영일대북부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희망동행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과 함께 포항사랑상품권 기능을 확대하고, 축제·관광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AI 라이브커머스 및 브랜딩 지원, 포항형 통합배달플랫폼 구축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상권 특화, 관광 연계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포항형 골목경제 회복 모델을 만들겠다"며 "골목상권의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부산시, 'ASEAN+3 채권시장 포럼' 연다

11월 예정... 지속가능금융 등 논의

'ASEAN+3'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한·중·일) 채권시장 3대 국제포럼이 올 11월 부산에서 함께 열린다.

부산시는 올 11월2~6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에서 'ASEAN+3 채권시장 3대 국제포럼'을 통합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디지털 채권 포럼'(DBMF)과 아세안(ASEAN)+3 채권시장 포럼(ABMF), 국가 간 결제인프라 포럼(CSIF) 등의 정례회의를 한 자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올해 포럼에는 아세안+3 각국 재정당국과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의 관계자 및 국제금융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가운데 디지털채권, 국가 간 결제인프라, 지속가능금융 등을 주제로 정책세션과 전문가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친환경·해양 분야 투자채권(그린·블루본드) 활성화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방안 등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금융중심지 브랜드를 높이고,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디지털·지속가능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교육청

#### 내달 '여름 독서교실' 운영

부산시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은 여름 방학을 맞아 내달 4~6일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도서관은 독서교실 담당 사서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참가 학생들은 아침독서, 도서관 이용 교육,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 특강 등 도서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 희망 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 도서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 "부산 폭염 정보 알려드려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폭염 정보 알림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산 지역 27개 도시대거점 정소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기온 자료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권 폭염 상황을 알린다.

서비스는 연구원 누리집 내 실시간 기온 정보 팝업창과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 16개 대기환경정보 신호등, 대기환경정보 알림톡 메시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부산=이도식 기자